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Developing the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 for Toddlers

김지연¹ 김명순² 이신희³ 박정원⁴

JiYeon Kim¹ MyoungSoon Kim² ShinHee Lee³ JeongWon Park⁴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Toddler) and analyze it in terms of item discrimin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7 toddlers and mothers. This scale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six domains and 22 items on a 5-point scale. For the item discrimination of the observation scale, an independent standard t-test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verag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groups for each item. The reliability of the observation scale was calculated by Cronbach's α , the intra-item agreement, and the validity was examined through content validity, the correlation between subdomains and total scores, and official validity using PICCOLO.

Results: In item discrimination analysis, all items exhibited differences between upper and lower groups. The overall internal agreement for the observation scale was 0.95, with factor-specific internal agreement ranging from 0.83 to 0.95. The observation scale demonstrated notable correlations between total scores and sub-factors (0.45 to 0.93)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ICCOLO total scores (0.66 to 0.86).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successfully verified the item discrimina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Toddler).

Key words Parent Play Interaction Observation Scale (PPIOS)-Toddler, play, language, emotion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2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명예교수
(e-mail: kimms@yonsei.ac.kr)

3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4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I. 서론

영아기는 급진적인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인간의 전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Luckenbill et al., 2019), 이 시기의 경험은 미래의 배움, 관계 및 건강의 기초를 이루는 뇌 구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ernier et al., 2016,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5). 영아의 건강한 발달은 영아의 삶에 중요한 인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Frosch et al., 2019; Wittmer & Petersen, 2011).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관계는 민감하고

상호 반응적이며(신혜영, 김명순, 2021; 양승희, 2016), 영아의 고유한 기질 및 개인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영아의 흥미, 능력, 시도를 키워주고 자기 인식, 마음과 정신의 성장을 자극하여 영아의 발달을 촉진한다(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4).

영유아의 일상은 ‘놀이 그 자체’라고 표현할 만큼 놀이는 영아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놀이는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Ginsburg, 2007). 영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놀이는 영아에게 있어 전인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매개체이자, 능동적인 배움의 주체자가 되도록 한다(이은혜 등, 1990; Luckenbill et al., 2019; Wittmer & Petersen, 2011).

세상에 대한 영아의 탐색 및 자율성 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은 영아의 놀이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지현 등, 2017. 12; 신혜영, 김명순, 2021; 양승희, 2016; Wittmer & Petersen, 2011). 영아의 발달과 상호작용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및 영유아 기관과의 가정 연계를 통한 감각놀이를 실시한 결과,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언어적 모델링이 증가하며, 민감한 상호작용 및 신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화 등, 2010). Noll과 Harding (2003)은 상징놀이 맥락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선택을 격려할 때 상징놀이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Frodi 등(1985)은 영아-어머니 놀이상황에서 어머니가 통제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영아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해 준 경우, 과제 수행 시 더 높은 몰입도와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높으면 영아의 놀이가 촉진되며(이혜윤, 김명순, 2020) 영아의 놀이 수준 및 상징 놀이 빈도 또한 높아진다(이지영, 성지현, 2015; 최연수 등, 2016). 어머니가 영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토대로 영아에게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 설명해주며, 상호 주고받기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영아의 어휘력 발달이 이루어진다(김기철, 2016).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영아의 놀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행동은 영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윤, 김명순, 2020; Masur et al., 2013). 월령이 낮은 영아는 기능놀이와 반복놀이를 주로 하며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주변 환경 및 놀잇감에 대한 탐색이 놀이의 주가 된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어려움을 느껴 주로 관찰만 하게 되거나, 방치, 무관심, 무관여 등 놀이 비참여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윤, 김명순, 2020).

대체로 부모는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자로 어머니와 영아의 수준 높은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한다(이혜윤, 김명순, 2020).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영아라도 부모의 반응과 정서적 지지에 따라 사회정서 행동이 조절되어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김양은, 2014).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는 영아의 심리적 안전감,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배움의 동기, 문제 해결, 도덕성 등 광범위한 역량에 기초가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 2세 전후 영아의 경우 여전히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의 욕구가 높아 부모가 발달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승아, 2015). 그러므로 부모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양질의 상호작용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영아 발달 특성상 탐색과 반복, 비언어적 소통을 주로 하는 영아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영아의 자발적 탐색과 주도적 놀이를 지원하는 영아-부모 놀이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관찰·분석할 수 있는 척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놀이상황에서 부모-영아의 상호작용 관찰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 및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김훈지, 김명순, 2019; 김지현 등, 2017. 12; 신혜영, 김명순, 2021; 양승희, 2016; 이해윤, 김명순, 2020; Hamre et al., 2014; Jones et al., 2015; La Paro et al., 2012; Roggman et al., 2009)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부모-영아 상호작용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요한 내용 및 측정 범주는 탐색, 반응성, 정서,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비계설정 등이었다.

우선, 탐색은 영아가 놀이 시 보여주는 탐색, 호기심 등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뜻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놀이 시 양육자는 영아의 탐색을 촉진하기 위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함께 하며, 거울 행동(mirror behavior) 등의 관여가 나타나는지, 영아의 주도를 따라가고 영아의 선택을 허락하고 탐색을 지지해주는 ‘영아 중심’의 행동이 나타나는지,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격려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영아의 경험을 확장하는지 평가하였다(Hamre et al., 2014). 그리고 탐색 허용 및 안전 관련 행동의 영역에서 영아의 탐색 및 자율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지, 언어로 제한하는지, 신체적으로 제한하는지 측정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반응성은 영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신호와 요구, 감정, 흥미, 행동 등에 대해 부모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하여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 시 양육자의 민감성(sensitivity)을 측정하기 위해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여 영아의 신호와 요구를 인식하고, 영아의 감정과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융통성 있게 행동을 조정하는 반응성과 이에 대해 영아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평가하였다(신혜영, 김명순, 2021; Hamre et al., 2014; La Paro et al., 2012). 또한 영아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영아의 관심이나 요구에 적절한 속도로 맞추어 반응하는지, 영아의 정서나 기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응하는지, 영아의 말이나 소리, 표정, 몸짓 등을 잘 살피고 반응하는지 평가하였다(Ginsburg, 2007). K-MBRS(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에서는 ‘반응성(responsivity)’의 항목에서 영아의 행동에 부모가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평가하였고(양승희, 2016), Jones 등(2015)은 ‘mind’의 항목에서 영아의 요구나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고,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돕는지 평가하였다.

정서는 부모가 영아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 친밀감을 나타내며, 정서적 따뜻함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존중하며 대하는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근접성, 눈맞춤, 공동주의, 애정 등의 관계적 행동, 미소, 웃음 등의 긍정적 정서 표현,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영아를 존중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짜증, 성급, 화냄 등의 부정적 정서의 결여의 항목을 통해 부정적 및 긍정적 분위기를 측정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오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K-MBRS(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에서는 ‘온정성(warmth)’의 항목에서 부모가 영아에게 보이는 따뜻함의 표시 정도와 사랑스러운 언어로 영아를 대하는 긍정적 태도, 긍정적 감정표현의 빈도와 질로 평가하였고(양승희, 2016), Jones 등(2015)은 ‘touch’의 항목

에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영아 자녀와 스킨십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행동 및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사물에 대해 부모가 언어로 명명해주고 설명하며, 확장해주고, 주고받기(turn-taking)가 일어나도록 격려하는가를 측정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영아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의 행동, 활동에 대해 묘사하고, 사물 명명해주기, 다양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주기, 영아의 의사소통을 지지하고, 주고받는 언어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모델링을 보여주며, 의사소통할 때 단어나 행동 등을 첨가하여 의사소통을 확장하는지 평가하였다(김지현 등, 2017. 12; 김훈지,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비계설정은 영아의 놀이 또는 인지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영아의 개별 발달 요구에 따라 부모가 적절한 지원과 교수를 제공하는가를 측정한다. CLASS-Toddler에서는 배움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탐색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탐색을 안내하고, 배움과 발달을 지지하기 위해 활동에 관여하여 적극적인 촉진이 일어나는지, 영아의 삶과 경험을 연결해주고 촉진하는지 평가하였다(오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La Paro et al., 2012). Jones 등(2015)은 ‘play’의 항목에서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연계하여 놀이를 시도, 유지하도록 돕는지 측정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영아-부모의 관계 형성 및 영아의 최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아기에 부모와의 양질의 놀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며(Landry et al., 2006), 영아 발달 및 놀이특성, 놀이 상호작용 시 영아와의 소통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척도 및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부모 및 교사의 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척도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영아와의 놀이 시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침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영아 상호작용 관찰척도 평가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내용 타당도, 문항 변별도, 척도 신뢰도, 척도 타당도의 네 가지 측면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2세 영아 어머니와 영아 9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0명, 여아가 47명이었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25.67개월($SD = 3.04$)이었으며, 영아

의 월령대는 17~36개월로 이중 25~30개월 영아가 72명(74.2%), 19~24개월 영아가 19명(19.6%)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대 범주는 만 25세에서 45세 미만으로 다수가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50명(51.5%),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3명(34.0%)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7명(48.5%)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7명(27.0%), 전문대 졸업이 16명(25.4%)이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 = 97)

	변인	빈도(%)
영아 성별	남아	50(51.5)
	여아	47(48.5)
영아 월령	12~18개월	3(3.1)
	19~24개월	19(19.6)
	25~30개월	72(74.2)
	31~36개월	3(3.1)
어머니 연령	만 25세 이상-30세 미만	4(4.1)
	만 30세 이상-35세 미만	50(51.5)
	만 35세 이상-40세 미만	33(34.0)
	만 40세 이상-45세 미만	10(10.3)
어머니 학력	고졸	2(2.1)
	전문대졸	18(18.6)
	대졸	47(48.5)
	대학원 이상	29(29.9)
	기타	1(1.0)

1) 연구도구

(1)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부모와 영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영아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공동주의, 주고받기 등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김명순 등 2007; 김훈지, 김명순, 2019;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5; Shuler, 2012), 놀이 참여 관련 연구(이혜운, 김명순, 2020; Damast, 1994), 놀이지식 및 놀이발달, 놀이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김의정, 2011; 오수정, 김명순, 2019; Hamre et al., 2014; Quinn & Kidd, 2019), 반응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신혜영, 김명순, 2021; 최연수 등, 2016)의 주요 내용과 분석 범주 등을 참고하여 개발 척도의 범주와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놀이상황에서 10분간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부모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3개 범주, 6개 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 세부내용

범주	영역	내용	행동 특성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 중심	주도허용	1. 영아의 선택을 허용하기	
			2. 영아의 탐색 지지와 기다림	
			3. 영아의 주도 인정하기	
	놀이 중심	기능놀이	4. 영아의 활동 또는 관심의 변화에 융통적으로 반응해주기	
			5. 영아의 놀이 행동을 읽어주고 미러링하기	
		상징놀이	6. 상징놀이를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함께 하기	
			7. 놀이를 영아의 놀이 행동 및 경험과 연결하여 유지 및 확장해보기	
			8. 영아와 시선, 몸짓, 말에 공동으로 주의 기울이기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주고 받기 (Turn-taking)	언어적 교환	9.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와 맥락을 이해하여 반응하기	
			10. 어머니는 몸짓, 단어 제시, 질문 등을 제공하여 영아와의 적극적인 언어적 교환을 촉진하기	
			11. 영아가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질문이나 말을 한 후 중간 중간 침을 주고, 속도를 맞춰주어 상호 간 차례맞기 하기	
	언어 확장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	12. 영아의 수준에 맞는 쉬운 문장이나 어휘로 명명, 반복, 설명해주기	
			13. 영아의 말(언어, 비언어)을 명확한 발음과 명료한 문장으로 확장해서 말해주기	
			14.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묘사해주기(행동 반영하기)	
			15. 상호적 눈 맞춤 또는 애정 어린 신체적 접촉 등 온정적 행동 표현하기	
			16.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긍정적 표현	17. 부드러운 목소리 톤/ 억양	
			18. 미소, 밝은 표정, 즐거움	
			19. 격려하기	
	반응성	민감성	무반응 및 부정적 표현	20. 무관심, 지루함, 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
				21. 영아의 정서(감정이나 기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 수용하기
				22. 영아의 필요를 이해하여 지지하기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범주 중 ‘영아 중심’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와의 놀이에서 영아의 탐색, 호기심, 놀이에 대해 지지하고 영아의 주도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관찰한다. ‘놀이 중심’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의 놀이 수준에 맞게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여 영아의 놀이 또는 인지적 사고를 발전 또는 확장하는지 관찰한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범주 중 ‘주고받기 (turn-taking)’ 영역에서는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모가 같이 공동주의를 기울이고 상호 언어적 교환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을 지지해주는지 살펴본다. ‘언어 확장’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 수준에 맞는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언어사용을 통해 사물을 명명하고, 상황을 묘사하고, 완전하고 다양한 문장 등을 사용하여 영아의 언어를 확장하는지 관찰한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범주 중 ‘정서 표현’ 영역에서는 부모가 영아와 신체적으로 근접한 곳에서 영아에게 긍정적 및 부정적 표현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반응성’ 영역에서는 영아가 부모에게 보이는 신호,

정서 표현, 말, 흥미, 행동 등에 대한 반응 등을 파악하고 수용하며 영아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하는 반응을 관찰한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낮은 수준(1, 2점), 중간 수준(3점), 높은 수준(4, 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찰척도를 활용한 상호작용 분석 시 1점은 관찰척도 내용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2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 3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 4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5점은 관련 행동 특성이 지속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정서적 상호작용의 무반응 및 부정적 표현은 관찰되지 않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정된다. 점수는 총 10분간 촬영된 부모-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5분 단위로 나누어 평정 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 범주에 대해 평정 기준에 따라 1~5점 사이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89~.92로 나타났다.

(2) 준거 도구

본 연구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Roggman 등(2009)의 PICCOLO(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ren: Checklist of Observations Linked to Outcom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정서, 반응, 격려, 교수의 4개 영역, 총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관찰되지 않음(0점)’, ‘드물게 관찰됨(1점)’, ‘명확히 관찰됨(2점)’의 3점 척도이다. 가능한 최고 점수는 5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점수의 평정은 10분간 촬영된 부모-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각 하위범주에 대해 평정 기준에 따라 0~2점 사이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PICCOLO를 사용하여 평정한 관찰자 간 신뢰도는 .86~.92로 나타났다.

표 3. PICCOLO 관찰척도의 하위범주 및 내용

범주	내용
정서(Affection)	따뜻함, 신체적 접촉, 영아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표현
반응(Responsiveness)	영아가 보이는 단서, 정서표현, 단어, 흥미, 행동에 대한 반응
격려(Encouragement)	놀이, 탐색, 호기심, 동기, 기술, 창의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주기 포함
교수(Teaching)	대화 나누기, 놀이하기, 인지적 자극주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포함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척도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부모 및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1차로 30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개발된 문항에 대해 아동가족학 교수 1명,

아동가족학 박사 1인, 아동가족학 및 유아교육 석사 2인 등 총 4명의 전문가에게 분석 범주 및 내용에 관해 평가를 받고, 하위 영역 내 구성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무반응 및 부정적 표현에 관한 문항 2개(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 및 처벌행동 → 무관심, 지루함, 불만의 표현, 거친 신체적 상호작용)를 수정하였다. 또한 민감성 내 문항과 유사하다고 판단된 1개 문항(영아가 보이는 (감정표현, 행동에 대해 영아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조정하여 움직임)과 놀이 상황에서 발생 빈도가 낮은 안전 상황에 대한 문항 3개(영아의 돌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영아의 행동 모니터링하기, 위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한계 설정하기)와 발달의 적합성에 대한 문항 2개(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위험이나 도전을 허용하기, 놀이 및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에 대해 걱정 수준 허용하기)는 삭제하였다.

이후 개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영아 4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부모-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촬영을 위해 이윤선과 김명순(2013), 이영신과 김명순(2020)의 논문을 참고하여 놀잇감을 선정하고, 촬영 소요 시간, 측정 도구 및 방법의 적절성, 분석 기준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았다. 부모-영아의 놀이상황을 약 15분간 녹화하였고, 놀이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의 영상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조사 이전에 놀이상황에서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을 평정하기 위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평정자는 영유아 교육 현장 경력 5년 이상의 유아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2명과 아동가족학 박사과정생 연구자로 총 3명이었으며, 재평정과 논의를 통해 80% 이상 일치도가 나올 때까지 의견을 조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관찰 전 상황에서 부모-영아가 낯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촬영 환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와 영아 9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에게 연구절차를 안내하고 촬영 동의를 구한 뒤 촬영 일정을 결정하였다. 촬영은 부모의 상황에 따라 영유아 기관의 교실이나 가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가지고 간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촬영 전에 부모-영아가 촬영하는 연구자, 카메라 등 촬영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이후 놀이상황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 중 부모와 영아의 놀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놀잇감은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한 놀잇감을 사용하였다. 놀잇감은 상상놀이 놀잇감(그릇 2개, 손가락 2개, 컵 2개, 동물 인형 2개, 보자기 2개, 밀가루 반죽), 조작놀이 놀잇감(레고자동차 2개, 레고 사람 2개), 쌓기놀이 놀잇감(큰 스폰지 블록, 작은 스폰지 블록), 신체놀이 놀잇감(큰 공 1개, 작은 공 1개), 음률놀이 놀잇감(마라카스 2개)으로 구성하였다. 촬영이 끝나면 부모와 영아에 대한 연구학적 배경에 관한 설문을 배부하고 작성이 끝나면 회수하였다. 이후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3개 하위범주, 22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22개 문항을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쳤다. 이를 위해 개발 척도의 문항 타당성은 아동가족학 교수 1명, 아동가족학 박사 1명, 아동가족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영아반 교사 2명에게 내용 검증을 받았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 개발과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척도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 각 30%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문항별로 상·하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관찰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타당도는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준거 도구인 PICCOLO(Roggman et al., 2009)와 관찰척도 총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타당도

1) 내용 타당도

개발 척도의 문항 타당성은 아동가족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았으며, 문항 내용의 명확성, 영역과 하위 문항 간의 내용 부합성, 추가 및 삭제할 문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하위영역 간 내용의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아 중심’ 영역에 있던 ‘공동주의’를 ‘주고받기’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영아의 시선,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는 ‘영아의 시선, 몸짓, 말에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로 수정하였다. ‘상징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함께 하기’는 ‘상징놀이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함께 하기’로, ‘놀이를 영아의 경험과 연결하여 확장해보기’는 ‘놀이를 영아의 놀이 행동 및 경험과 연결하여 유지 및 확장해보기’로, ‘영아의 언어, 비언어적 신호와 필요를 이해하여 반응하기’는 ‘영아의 의사소통 신호와 맥락을 이해하여 반응하기’로 수정하였다. 문항 중 ‘영아의 의사소통적 시도 인식하기’는 삭제하였으며, ‘신체적 근접성’ 내용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를 추가하였다.

2) 척도 타당도

(1)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 및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본 관찰척도의 각 요인이 하나의 구인으로 타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관찰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과 총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과 하위 영역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본 관찰척도의 총점과 하위 영역 간의 상관은 .78~.9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역 간 상관이 가장 높은 영역은 주고받기와 언어 확장이고($r = .81, p < .01$), 영역 간 상관이 가장 낮은 영역은 놀이 중심과 정서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r = .45, p < .01$).

표 4.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 및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N = 97)

영역	1	2	3	4	5	6	7
1. 영아 중심	-	.65**	.71**	.62**	.51**	.75**	.84**
2. 놀이 중심		-	.71**	.74**	.45**	.58**	.84**
3. 주고받기			-	.81**	.76**	.73**	.93**
4. 언어 확장				-	.66**	.68**	.88**
5. 정서 표현					-	.61**	.78**
6. 반응성						-	.82**
7. 총점							-

** $p < .01$

(2) 공인 타당도

본 관찰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PICCOLO를 사용하여 본 관찰척도와 PICCOLO 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PICCOLO 총점과 영아 중심($r = .69, p < .01$), 놀이 중심($r = .70, p < .01$), 주고받기($r = .81, p < .01$), 언어 확장($r = .77, p < .01$), 정서 표현($r = .66, p < .01$), 반응성($r = .68, p < .01$)으로 전체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관찰척도와 PICCOLO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이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와 PICCOLO와의 상관 (N = 97)

영역	정서	반응	격려	교수	총점
영아 중심	.54**	.67**	.75**	.46**	.69**
놀이 중심	.55**	.61**	.66**	.63**	.70**
주고받기	.69**	.82**	.75**	.64**	.81**
언어 확장	.62**	.71**	.71**	.71**	.77**
정서 표현	.67**	.70**	.64**	.45**	.66**
반응성	.55**	.74**	.74**	.43*	.68**
총점	.71**	.83**	.82**	.69**	.86**

* $p < .05$, ** $p < .01$

2. 문항 변별도

본 척도 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위 각각 30%씩 집단을 선택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문항 변별도 분석을 위한 상·하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N = 97)

문항	집단	N	M	SD	t	문항	집단	N	M	SD	t
1	상	24	4.71	0.55	9.41***	12	상	24	4.83	0.38	10.88***
	하	24	2.79	0.83			하	24	2.83	0.82	
2	상	24	4.71	0.55	11.04***	13	상	24	4.92	0.28	11.18***
	하	24	2.46	0.83			하	24	2.92	0.83	
3	상	24	4.75	0.53	8.84***	14	상	24	4.50	0.72	8.09***
	하	24	2.71	1.00			하	24	2.63	0.88	
4	상	24	4.50	1.18	6.03***	15	상	24	5.00	0.00	6.58***
	하	24	2.58	1.02			하	24	3.83	0.87	
5	상	24	4.33	1.24	5.79***	16	상	24	5.00	0.00	3.52***
	하	24	2.50	0.93			하	24	4.21	1.10	
6	상	24	4.88	0.34	11.07***	17	상	24	4.96	0.20	4.20***
	하	24	2.67	0.92			하	24	4.29	0.75	
7	상	24	4.75	0.53	11.60***	18	상	24	4.96	0.20	5.99***
	하	24	2.42	0.83			하	24	3.79	0.93	
8	상	24	4.92	0.28	6.62***	19	상	24	3.63	1.50	4.43***
	하	24	3.54	0.98			하	24	1.88	1.23	
9	상	24	4.96	0.20	7.00***	20	상	24	4.96	0.20	4.19***
	하	24	3.42	1.06			하	24	4.33	0.70	
10	상	24	4.92	0.28	7.94***	21	상	24	4.96	0.20	12.60***
	하	24	3.04	1.12			하	24	2.96	0.75	
11	상	24	4.96	0.20	7.37***	22	상	24	4.96	0.20	11.71***
	하	24	3.00	1.29			하	24	2.92	0.83	

***p < .001

분석 결과, 총점에 의한 집단에서는 전체 문항에서 상·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관찰척도의 모든 문항에서 상 집단의 평균이 하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찰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영아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평정할 때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임을 나타낸다.

3. 문항 신뢰도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하위 영역 및 각 영역별 문항 수와 내적 합치도 계수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본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의 ‘영아 중심’은 .95, ‘놀이 중심’은 .85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고받기’는 .90, ‘언어 확장’은 .88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정서 표현’은 .83, ‘반응성’은 .94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척도 및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

표 7.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 (N = 97)

범주	분류	문항 수	Cronbach's α
I.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	영아 중심	3	.95
	놀이 중심	4	.85
	소계	7	.90
II.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주고받기	4	.90
	언어 확장	3	.88
	소계	7	.93
III.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	6	.83
	반응성	2	.94
	소계	8	.88
총점	-	22	.95

IV. 논의 및 결론

최근 개정된 국가수준 보육·교육과정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현장에 지향하는 바를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영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영아 자녀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간의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내용을 보완하여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타당도, 문항 양호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가족학과 교수를 포함한 총 4명에게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의 영역 및 세부내용, 영아라는 대상 특성 등을 반영하는지에 관해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문항의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문항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영역 간 재배치와 문항 서술에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영아와 상호작용 시 고려해야 할 영아 발달 및 놀이 발달 특성, 놀이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언어 및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척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각 영역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척도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각 영역과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과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총점과 각 영역 간의 상관계수는 ‘영아 중심’이 $r = .84(p < .01)$, ‘놀이 중심’이 $r = .84(p < .01)$, ‘주고받기’가 $r = .93(p < .01)$, ‘언어 확장’이 $r = .88(p < .01)$, ‘정서 표현’이 $r = .78(p < .01)$, ‘반응성’이 $r = .82(p < .01)$ 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하위영역이 놀이 상호작용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 척도인 PICCOLO(Roggman et al., 2009)의 총점 및 각 하위 영역 간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두 척도

의 총점 간에는 .86($p < .01$)로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간에도 .43($p < .05$)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영아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을 잘하는 부모는 상호작용 시 정서, 반응, 격려, 교수 행동 또한 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상호수반성(이영신, 김명순, 2020)에 해당하는 ‘주고받기’의 경우 PICCOLO의 반응 간의 상관이 .82($p < .01$)로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본 척도의 요인과 준거 도구와의 상관은 본 척도의 타당도를 제시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척도 문항의 변별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점수를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의 차이를 잘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와 영아의 놀이상황을 관찰할 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문항 구성 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후 영유아 교육 전문가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이에 따른 논의 및 반영이 충실히 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관찰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본 관찰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역별 내적 합치도는 ‘영아와의 탐색과 놀이 상호작용’의 ‘영아 중심’은 .95, ‘놀이 중심’은 .85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고받기’는 .90, ‘언어 확장’은 .88로 나타났다. ‘영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의 ‘정서 표현’은 .83, ‘반응성’은 .94로 나타났다. 즉,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95으로 대체로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본 척도는 신뢰도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관찰척도는 영아 자녀와 부모 간의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에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의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관한 척도들이 주로 자녀 표현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 상황의 주도, 자녀의 정서적 표현 등 의사소통과 관련한 관찰 요인과 영아의 탐색 등의 발달 특성을 주로 다루었다면(김지현 등, 2017. 12; 최혜란, 김영희, 2019; 한유진 등 2019; Caldwell & Bradley, 2003; Pianta et al., 2014; Roggman et al., 2009), 본 척도에서는 영아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놀이상황에 집중하고, 이때 부모와 영아 자녀 간의 놀이 상호작용 시 고려해야 할 첫 단추인 놀이에 대한 이해와 영아의 놀이 발달, 놀이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언어 및 정서적 상호작용 등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상황에서 영아의 놀이 발달 특성에 기반한 접근과 부모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부모와 영아가 상호 주체자가 되는 관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본 척도를 통해 이 시기의 부모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의 평가 뿐 아니라 놀이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놀이, 언어, 정서적 상호작용의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부모와 영아 쌍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를 중심으로 관찰·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주양육자를 아버지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철 (2016).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17.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01>
- 김명순, 김의향, 이유진 (2007). 영아의 차례 말기와 어휘습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7(3), 301-314.
- 김양은 (2014).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85-102. <https://doi.org/10.14698/jkce.2014.10.3.085>
- 김의정 (2011). 어머니의 놀이지식 및 놀이상호작용과 만 2세 영아의 놀이수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문무경, 최윤경 (2017. 12).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813>에서 2023년 8월 31일 인출
- 김훈지, 김명순 (2019). 만 2세 영아-어머니 놀이 상호작용에서 공동주의에 따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놀이 참여도.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169-186. <https://doi.org/10.36431/JPE.11.4.9>
- 신혜영, 김명순 (2021). 만 1세 영아의 맞벌이 부모 동반참여 블렌디드러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양육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2), 261-277. <https://doi.org/10.5723/kjcs.2021.42.2.261>
- 양승희 (2016).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부모의 반응성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6(4), 129-147. <https://doi.org/10.21213/kjce.2016.16.4.129>
- 오수정, 김명순 (2019). 어린이집 만 2세반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놀이행동 및 상징놀이 수준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1), 125-141. <https://doi.org/10.7466/JKHMA.2019.37.1.125>
- 이숙화, 황성하, 남미경 (2010). 보육시설과 가정의 연계를 통한 감각활동이 영아의 신체발달과 영아-부모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3), 103-125.
- 이승아 (2015). 걸음마기 영아의 놀이특성 및 놀이행동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9(1), 413-440.
- 이영신, 김명순 (2020). 영아의 의사소통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행동 및 언어수반성과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23-48. <https://doi.org/10.36431/JPE.12.3.2>
- 이윤선, 김명순 (2013).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4(2), 1-25. <https://doi.org/10.5723/KJCS.2013.34.2.1>
- 이은혜, 지혜련, 이숙채 (1990). **놀이의론**. 창지사.
- 이지영, 성지현 (2015). 13~ 18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놀이의 관계에서 어머니 반응성의 역할. **아동학회지**, 36(5), 19-36. <https://doi.org/10.5723/KJCS.2015.36.5.19>
- 이혜윤, 김명순 (2020). 어머니가 인식한 어머니-자녀관계와 만 1세 영아의 놀이 수준 및 어머니 놀이참여 유형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1), 155-169.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155>
- 최연수, 김명순, 배선영 (2016). 만 2세 영아의 상징놀이 수준과 어머니의 반응성 및 언어유형 간의

-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83-98. <https://doi.org/10.7466/JKHMA.2016.34.5.83>
- 최혜란, 김영희 (2019).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평가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3), 89-117. <http://doi.org/10.22155/JFECE.26.3.89.117>
- 한유진, 강민수, 안복희 (2019). 유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87-110. <https://doi.org/10.36431/JPE.11.4.5>
- Bernier, A., Calkins, S. D., & Bell, M. A. (2016).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he quality of mother - infant interactions and brain development across infancy. *Child Development*, 87(4), 1159-1174. <https://doi.org/10.1111/cdev.12518>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 University of Arkansas.
-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2016. 5). *From best practices to breakthrough impacts: A science-based approach to building a more promising future for young children and families*. Retrieved August 31, 2023, from <https://developingchild.harvard.edu/resources/from-best-practices-to-breakthrough-impacts/>
- Damast, A. (1994). *Sequences in mother-toddler intera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liefs about play and maternal dyadic play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Frodi, A., Bridges, L., & Grolnick, W. (1985). Correlates of mastery-related behavior: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infants in their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5), 1291-1298. <https://doi.org/10.2307/1130244>
- Frosch, C. A., Schoppe-Sullivan, S. J., & O'Banion, D. D. (2019).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A relational health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15(1), 45-59. <https://doi.org/10.1177/1559827619849028>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al bonds. *Pediatrics*, 119(1), 183-191. <https://doi.org/10.1542/peds.2006-2697>
- Hamre, B. K., La Paro, K. M., Pianta, R. C., & LoCasale-Crouch, J. (2014).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 manual-Infant*. Brookes Publishing.
- Jones, C. H., Hutchings, J., Erjavec, M., & Viktor, S. (2015). The Parent Infant Play Observation code (PIPOc):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new positive parenting measure.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3(1), 54-68. <https://doi.org/10.1080/02646838.2014.970151>
- La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2006). Responsive parenting: Establishing early foundations for social, communication, and independent problem-solv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627. <https://doi.org/10.1037/0012-1649.42.4.627>
- La Paro, K. M., Hamre, B. K., & Pianta, R. C. (2012).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 manual-toddler*. Brookes Publishing.
- Luckenbill, J., Subramaniam, A., & Thompson, J. (2019). *This is play: Environments and interactions that engage infants and toddlers*.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Masur, E. F., Flynn, V., & Lloyd, C. A. (2013). Infants' behaviors a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of mothers' responsive and directive utterances. *First Language, 33*(4), 354-371. <https://doi.org/10.1177/0142723713490603>
-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04). *Young children develop in an environment of relationships: Working paper No. 1*. Retrieved August 31, 2023, from <https://developingchild.harvard.edu/wp-content/uploads/2004/04/Young-Children-Develop-in-an-Environment-of-Relationships.pdf>
- Noll, L. M., & Harding, C. G. (2003). The relationship of mother - child interaction and the child's development of symbolic pla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6), 557-570. <https://doi.org/10.1002/imhj.10071>
- Pianta, R. C., La Paro, K. M., & Hamre, B. K. (2014).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Manual, Infant*. Brookes Publishing.
- Quinn, S., & Kidd, E. (2019). Symbolic play promotes non verbal communicative exchange in infant-caregiver dyad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3-50. <https://doi.org/10.1111/bjdp.12251>
- Roggman, L. A., Cook, G. A., Innocenti, M. S., Jump Norman, V. K., & Christiansen, K. (2009). *PICCOLO (Parenting interactions with children: Checklist of observations linked to outcomes) user's guide*. Utah State University.
- Shuler, J. (2012). *Joint picture book reading in monolingual and bilingual parent-child dyads: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al quality*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 옮김). 학지사 (원판 2006).

논문투고: 23.02.23.
수정원고접수: 23.09.04.
최종게재결정: 23.09.15.